

---

# 200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감문

---

2004년도  
(제17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목 차>

|                |    |
|----------------|----|
| 김정훈 국회의원 ..... | 4  |
| 노웅래 국회의원 ..... | 5  |
| 정화원 국회의원 ..... | 6  |
| 고경화 국회의원 ..... | 8  |
| 송영선 국회의원 ..... | 9  |
| 김기현 국회의원 ..... | 10 |
| 김명주 국회의원 ..... | 12 |
| 김석준 국회의원 ..... | 14 |
| 김성곤 국회의원 ..... | 16 |
| 김영주 국회의원 ..... | 17 |
| 김희정 국회의원 ..... | 18 |
| 단병호 국회의원 ..... | 19 |
| 맹형규 국회의원 ..... | 21 |
| 서상기 국회의원 ..... | 22 |
| 손봉숙 국회의원 ..... | 24 |
| 안명옥 국회의원 ..... | 26 |
| 우제창 국회의원 ..... | 27 |
| 원혜영 국회의원 ..... | 29 |
| 유선호 국회의원 ..... | 31 |
| 이군현 국회의원 ..... | 32 |
| 이상득 국회의원 ..... | 33 |
| 이상열 국회의원 ..... | 34 |
| 이인영 국회의원 ..... | 36 |
| 이철우 국회의원 ..... | 38 |

|          |       |    |
|----------|-------|----|
| 장복심 국회의원 | ..... | 40 |
| 전병헌 국회의원 | ..... | 41 |
| 전여옥 국회의원 | ..... | 42 |
| 정두언 국회의원 | ..... | 43 |
| 정성호 국회의원 | ..... | 44 |
| 정세균 국회의원 | ..... | 46 |
| 정장선 국회의원 | ..... | 50 |
| 주호영 국회의원 | ..... | 51 |
| 최인기 국회의원 | ..... | 53 |
| 최철국 국회의원 | ..... | 54 |
| 한선교 국회의원 | ..... | 56 |

김정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수상소감]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정부 부처의 고의적 자료 제출 기피, 여당의 제식구 감싸기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3개월간의 준비기간과 20여 일간의 국정감사에서 작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위(自慰)해 봅니다.

특히 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 선정은 함께 고생한 보좌진들과 본인에게 있어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국민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초심(初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갖고 출범한 17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되고 있어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생보다는 정쟁만 일삼고 있는 현 정부의 무능과 경제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4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에는 국민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국정감사 기간동안 애쓰시고 고생하신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4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김 정 훈



노웅래 국회의원

수상소감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저에게 이렇듯 귀한 상을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상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NGO모니터단의 상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은 상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들께서 뽑아 주신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열심히 뛰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준비도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기에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의정활동을 점검하느라 고생하신 평가단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국회의원 노 웅 래

정화원 국회의원

## 200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감문 “정화원 의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 모니터위원이 일일이 상임위 전체를 모니터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기대가 컸던 국감이었기에 몇 달간 늦은 밤·새벽까지 의원실 불을 밝혔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와는 사뭇 각오가 달랐습니다. 긴장도 되고 몇 달간 고생해온 노력들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각장애인 의원으로서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동안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약속하고 보좌진에게 일러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안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폭로성 국정감사는 소리만 요란하지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수년간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해왔던 일에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까지 마련하려면 현재의 국정감사 시스템으로는 조금 버거운 일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동료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만 조선의원으로서 향후 국정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측면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동료의원님과 언론들로부터 깊은 관심과 격려도 받고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의 결실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손이 부르도록 관련 자

료를 점자로 읽었던 그 시간들이 남은 임기동안에도 변치 않는 제 삶의 자세가 되기를 다짐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고경화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고경화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의정활동을 펼친 제 이름 석 자 앞에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신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의도 의원회관에 자리를 튼 것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주어진 4년 임기 중에 반년이라는 임기 첫 해가 지나갑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1년의 국회일정 가운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기간을 지내면서 적지 않은 상념과 소회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도그마에 빠진 정치, 수적인 우세로 밀어붙이는 타협과 조정이 상실된 환경, 초선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도 언론이 주목해 주고 시민단체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해 주는 등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17대 국회에 대해 ‘혹시나 했다 역시나로 끝나는군’ 하는 국민의 질타가 있을까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같이 잘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이 무시되고 무조건 똑같이 살아야한다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따뜻한 관심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모여 다시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 12. 21

고경화 국회의원

송영선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7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말 그대로 국정감사장은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저의 오래된 「국방 사랑」과 「안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칫 지나치게  
강압적인 감사가 되지는 않았는지, 대안(代案) 없는 비판은 최대한 자제하겠  
다는 애초의 다짐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겸손하게 반성해 봅니다.

국감 내내 저는 현재 우리의 국방시스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북한의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전략은 미약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직접적인 북한군의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등 불  
특정 위협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역시 취약했습니다.

분명 새로운 전략을 통해 미래 전략 환경에 맞는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저는 우리 안보역량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  
하고,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모든 국방위 위원님들 또한 탁월한 능력과 안목으로 우리의 국방·안  
보 현실에 대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번 국감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번에 '국정  
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큰 상을 수여받게 되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상은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걱정하는 전 국민이 저에게 주신 격려이자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할 임무와 책임에 대한 지침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  
히 국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기간 수고하신 모든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  
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질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위원회 송영선 위원

김기현 국회의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 수상 소감>

국회의원 김기현(한나라당 • 울산 남을)

지난 5월 30일 제17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 깨끗한 정치, 성실한 국회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마음 속에 새긴지 벌써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정치현장에서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금쪽같은 시간”이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국정감사 결과를 통해 과분하게도 전국 270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니, 기쁨 못지 않게 더욱 무거운 책임감부터 갖게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결코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이나 청년실업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출연금과 지원금, 즉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임원들에게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는가 하면, 외형적으로는 급여를 삭감하였으나 편법으로 수당 등을 크게 올려 실질적으로는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실행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방식의 납품행태도 변칙적으로 특정업체를 사전 지정 납품계약을 함으로써 중소기업보호라는 본래의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윤리경영 의식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서류전형시 장애인을 선발하여 놓고, 면접에서는 낮은 점수를 주어 임용에서 탈락시키는가 하면, 거액의 수출보험기금을 무자격자에게 대출,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만들기도 했고, 연구과제나 용역 등을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특정인이나 기관에 무더기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유사한 연구과제나 용역을 소규모로 분할,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한 경우도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저는 감사 기간동안 밤을 새워가며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였습니다만,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국정감사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강도 높게 거론 하였지만, 현행 법규에 미흡한 점이 많아 공공부문이 원천적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법·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거의 무방비로 방치된 상태여서 제2의 씨랜드 사태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이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등을 규정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무원칙한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중점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감사를 요구한 바 있었으며, 앞으로 상공회의소법 개정을 통하여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우수의원 수상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우선의 국회의원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점검해 주신 모니터단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주 국회의원

## 2004년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 명 주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하여 10월 22일까지 첫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쌀 관세화 유예협상이었는데 지난 1994년 UR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입장으로 관세를 불허 자유롭게 수입하는 대신 최소 수입물량만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올해로서 마감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하여 쌀 수입을 불허하되 일정물량만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사주는 식으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과 같은 이해당사국들과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만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쌀의 자유로운 수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쌀농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번 국감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감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정도를 알고자 하는 국회와 다국간의 협상이라는 특성상 이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 대치되어 이번 국감에서 큰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의 대치 끝에 비공개보고를 받기는 하였지만,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외에 달리 나온 것이 없어, 도대체 그 정도 수준의 보고를 받기 위하여 여야가 몇시간이나 국감을 중단하고 대치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감기간 중에도 협상의 진전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대목입니다.

해수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것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허브항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른바 투포트 시스템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양항을 개발하면서부터 나왔던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지적되었고 3조원 가까이 되는 해수부의 예산 중 그 절반이 넘는 것이 항만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국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주로 해수어류양식수협외의 구조개선 문제와 EEZ상의 모래채취문제를 언급하면서 해수부가 일선 조합의 구조개선에 있어 처음 목표설정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과 EEZ상의 모래채취에 있어 해수부의 역할 증대와 점사용료의 수산업발전기금으로서의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자신의 지적사항을 잘 알려주기 위하여 친절히 보도자료를 만들어 내고, 사진이나 실물을 가져와 피감기관에 제시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시키는 선배동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감기간 동안 비단 우리 의원실에서 준비한 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국감자료를 보면서 또 과천, 대전, 수원, 의왕, 광주, 부산, 창원 등 피감기관 소재지를 돌아다니면서 농해수위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오히려 많이 배운 시간들이었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상임위가 3주 동안 동시에 국감을 치르다 보니 시간상의 효율성은 어떤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각 상임위별 주요 국정의 쟁점을 알려주기보다, 폭로성 내지 가십성 기사들이 환영받는 실정이라서 국감기간을 연중으로 하여 각 상임위별로 적당한 시기에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많이 배우고 자신감을 얻은 기간이었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나를 200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석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 우수의원 수상소감

국회의원 김석준

학자의 길을 접고 국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의원으로서, 애초 국회에 들어온 목적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이라는 심리적 압박도 압박이지만 민생과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먹거리창출의 최일선이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라는 사명감이 국감기간 내내 나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정책과 사업,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정부의 어느 부처보다 전문지식으로 단련된 조직인데 이들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 시작 3개월전인 7월부터 저의 국회의원회관 211호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서류더미와 각종 자료들로 전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스 단위로 들어오는 피감기관의 업무현황 자료와 제출자료 등을 보좌진과 함께 검토하노라면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고 쌓인 자료를 뒤로하고 퇴근하는 마음은 새로운 사실을 알아간다는 뿌듯함과 할 일이 많다는 사명감이 교차했습니다.

8월부터는 매주 보좌진과 피감기관에 대한 아침 스터디를 진행한 것이나,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를 이끌면서 8월, 9월 연속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보보안문제, 원자력과 국가경쟁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것 등은 이번 국정감사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렵게 치른 국정감사였지만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했고,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해 고루 질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내용의 질이나 양, 정책개선성과 등에서 스스로는 처음치르는 국정감사인 만큼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얼마만큼의 국민혈세를 아끼고 국가의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은 그동안의 노력이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활동을 의식하여 국정감사를 치른 것은 아니지만 국회내에 감시자가 있다는 것과 감시내용이 고스란히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국회가 보다 국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곤 국회의원

## 수상소감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 우수의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부끄러움 앞섰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던 제17대 국회는 그야말로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출발을 보였다. 이러한 세간의 중평이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던 터에 접한 소식이라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앞섰던 것이다.

제15대에 경험했던 국감이지만 제16대에는 등원하지 못했기에 공백이후 처음 맞는 국감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다. 보좌진과 함께 여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늦가을이 되어서야 국감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사실 제17대 등원해서 거의 모든 것을 국정감사에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기에 이번 수상은 남다른 감회가 있는 소식이었다.

이번에 우수의원으로 수상한 의원이나 수상하지 못한 의원이나 국정에 대한 의욕과 성의가 서로 차이가 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NGO모니터단의 평가는 좀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으로 국정감사 현장을 분석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며 국회의원들은 보다 원칙에 충실한 국정감사를 펼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여당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관계로 이번에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본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기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는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므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여야가 따로 없는 협력의 장이었다고 본다. 국정감사 초반의 불미스러운 파행도 이러한 공통된 인식아래 중반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성숙한 국가안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내년도에도 여야는 국방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누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잘못을 짚어내는가가 국정감사의 중요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국방위원회의 모든 국회의원은 모두들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며, 그 분들과 함께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김영주 국회의원

## NGO 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 수상 소감

국회의원 김 영 주

제17대 국회는 제2의 제헌 국회라고 할 만큼 많은 초선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의정활동에 대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고 이는 2004년 국정감사를 통해 역력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의 언론은 일부 상임위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17대 국회 역시 과거의 구습을 벗지 못한다는 과장보도를 했지만 전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또한 앞으로 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초선의원으로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국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물론 국정감사도 처음 치러낸 것이었습니다. 사무직 노동조합출신 여성으로서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웠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이나 여성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감사에 힘을 기울였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생활현장을 발로 뛰며 찾아다녔습니다.

수상소감이라니 다소 부끄럽습니다만, 이번 수상의 의미는 무엇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분발하라는 격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시민들의 눈에 의해 그렇게 평가되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직은 더 배워야 할 부분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기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NGO평가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수상의 영광이 빛을 발하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국회의원

## 수상소감

부산 연제구 출신의 국회의원 김희정입니다.

더 없이 소중한 상을 주신데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정시에 국정감사장에 나와 꼼꼼하고 치밀하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시는 그 끈기와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랐으며, 그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단체는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 활동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들에게 의정활동을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한 결과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국민의 기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NGO모니터단의 영향력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이 정도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매섭게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싱싱한 정치로 국민들의 마음을 상큼하게 하는 일에 경쟁하지 않을 수 없도록 NGO 모니터단이 앞장 서 주십시오. 좋은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또 응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는 보좌직원들과 사무처직원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상을 받은 의원들의 뒤에는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상을 주신 NGO모니터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동은 내가 먼저라는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 많은 정열을 쏟아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국회의원 김희정

단병호 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첫 번째 국정감사에 대한 자평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좋은 상을 받았는데 제 느낌과 감사의 뜻을 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부족한 조선의원의 활동을 좋게 평가해주신 여러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온 만큼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첫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였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족 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국정감사였습니다. 조선으로서 생소한 국회 환경과 업무들로 인해 미숙한점이야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선, 국감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공무원 노동조합 문제 등 역점으로 삼았던 사안들이 가슴에 걸립니다. 두 사안은 수 년 동안 노사정간의 민감한 현안으로 제기되어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였고 정부 법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가 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노사정 간에 지울 수 없는 불신의 골이 생길 문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토론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에게 답변을 포함한 15분 썬만 질문 기회가 주어지는 현재의 국정감사 틀 안에서 차분한 정책토론이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합리적인 대화보다는 국회로 떠넘기는 주장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일관하여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책의 다양한 요소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정규직 확대 법안과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 노동계와 극단적인 대립을 빚고 있어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악성노동탄압사업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전근대적 노사관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기

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문제를 다수 제기하였으나 회사 측이나 정부 모두 그 때만 잠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국감이 끝나자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국정감사의 한계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악성노동탄압사업장의 문제 즉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관과 노사에 대한 불공정한 법집행의 문제는 예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의해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이대로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감사를 상시 국감체제로 바꿔 현재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모든 의원들과 다른 당의 의원들 중 상당수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대화와 협력은 약속을 지키고 대화를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상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서 무거운 이야기만을 늘어놓아 누를 끼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다시한번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일신우일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맹형규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상임위원장 선정 소감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맹형규

먼저 국감 NGO모니터단 김대인 공동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9년 국감모니터 활동을 시작한지 올해로 6년차를 맞은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NGO모니터단의 활동이 의회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크게 3가지 원칙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첫째, 산자위의 주요 과제인 산업 및 에너지정책, 중소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을 챙기는 데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둘째, 그동안 늘 국정감사의 열외로 구분되어 왔던 상임위원장에 대한 인식을 깨고, 국회의원으로서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한다.

셋째, 국정감사 기간 중 모든 회의 정시개회와 여야 의원들의 당리당략없는 정책질의로 ‘신뢰받는 국회’ ‘정쟁없는 국회’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국감 모니터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게 아닌가 합니다. 국감모니터단의 기대와 격려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욱더 성실한 자세와 원칙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서로 신뢰하며 모범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준 산자위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국정감사를 준비해준 피감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문]

과학기술계 비례대표인 서상기 의원은 이번 첫 국정감사에서 그간 산·학·연을 두루 거치며 평생을 과학기술계에 몸담았던 유일한 의원으로서 문제점과 대안을 정확히 지적했다. 특히 국감의 원칙을 “테마가 있는 국감, 색깔 있는 국감”으로 정하고, 큰 틀에서 방향을 점검하였으며, 정책질의와 현안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의 각종 사업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국회 보고 정례화, 연구실적 마일리지제 도입, 국가 R&D 장비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핵물질 실험 사태를 계기로 한 핵 연구 주권 확보 노력을 강조한 것 등이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과기부총리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통부에서는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 운영에 대한 비리와 이공계 인력양성 차원의 개선대책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문제가 많았던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내면서, 비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방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그리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금년 발표된 감사원 특감에서 밝혀진 당시 진흥원의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에 대해 그 책임을 물었다.

또한 최근 언론노조와 합의된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해서도, 그 지연손실액을 계산하여 최소 1조 3천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였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며 휘둘린 탓에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4년이나 늦어졌으며, 그 정도 추진력으로 어떻게 IT839를 이끌어 나가겠냐며 호되게 질타하였다.

국감기간 중 2권의 정책자료집을 냈으며 단순히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차원이 아닌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하나는 인터넷 전용회선의 요금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간의 비교자료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털TV 전송방식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다.

이번 국감은 서상기 의원의 그간 과학기술계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을 큰 틀에서 다루었으며, 특히 불거진 핵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사이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많은 고뇌를 하였음을 밝혀둔다.

결과적으로 서상기 의원은 언론과 피감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 의원에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국감기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우수의원에도 선정되었다.

앞으로 서상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정책 및 각종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안이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희망보고서>를 펴내며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째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하는 20일간의 첫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피감기관의 수가 많아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밤낮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가면 하루에 7-8시간씩, 늦는 날은 12시간씩 꿈쩍 않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체력싸움에 가까운 총력전이였다고나 할까요? 정말 힘들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보람도 컸습니다. 투명한 문화행정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문화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와 산하 기관, 단체들을 철저히 감사했습니다. 폭로나 비판보다는 문화행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는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불법」이 적지 않았습니다. 불법인 줄 알았지만 관행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기관장들은 전혀 부끄러운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밝히고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초선의 눈으로는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 보였고, 어떤 곳에는 돈이 몰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 감사를 마친 지금에도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여전했고, 기관은 적자가 나도 임원들은 억대의 연봉을 누리고 있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전력투구를 하기보다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국감에서 매년 지적된 잘못이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 모두 국정감사를 매년 치르는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혹시 “관행”은 아닌지가 초선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국정감사를 보도하는 언론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정책국감”을 주문하면서 보도는 “정쟁국감”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도 센세이셔널 하지 않으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여. 야가 격돌하는 것을 반드시 정쟁으로 몰아 부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방법에서 여. 야 간에 정책적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논쟁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에 좀 더 민생국감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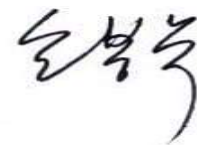
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언론매체들이 특정 정책을 보는 시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매체에 유리한 사안을 중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보도하는 경향도 컸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균형된 국감 보도가 어느 때보다 취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선 문광위 소속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처럼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 정당에서는 같은 당 소속 의원간에 분야별로 분담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비해 저는 모든 분야를 일단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선 순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나 자리 배치를 정당 순으로 하여 맨 끝자리에 앉는 것 등도 비교섭단체가 감수해야 하는 관행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앉거나 발언순서를 순환제로 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기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의 철칙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별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밝혀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보다 투명한 문화행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상시감사체제를 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정책제안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대안을 찾는 일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한권으로 묶으면서 감히 <희망보고서>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비려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밤샘작업도 불사하고 하나로 뭉쳐 최선을 다해 뛰어 준 우리 보좌진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을 마다않고 열심히 보도를 해 주신 모든 언론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회관 844호실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10월22일에 손봉숙이 썼습니다.



- 아침부터 밤까지 유권자를 대신해 고된 모니터 활동을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수의원의 선정은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따듯한 격려라고 생각하며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대부분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대신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평가,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국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앞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여 피감기관별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기조와 실제 집행상의 문제점,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취재를 통해 보건복지 실무자, 환자, 장애인, 노인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2004년도 국감 최초의 '영상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인력과 시간이 극히 제한된 감사 준비현실이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정부측에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첫째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국정감사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특히 한정된 시간에 준비한 자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국회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민단체의 모니터와 평가는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경쟁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4년 국감은 끝났지만 상시국감체제라는 마음이 짐으로 건강하고 따듯한 나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창 국회의원

###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치며

제17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소회가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일반유권자의 입장에서 이전 국회의 정쟁과 당리당락에 치우친 비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보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던 것이 바로 어제 일 같은데, 막상 국회의원으로서는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니까 가슴 한편에 막연한 '경외감(敬畏感)'이 일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새롭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면서 마음먹었던 나름의 소신을 한 가지만 밝힌다면,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자금경색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해 실직의 위기에 직면한 보험모집인에게 급작스러운 실직의 우려를 덜어주고, LPG 특소세를 인하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번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감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다면,

우선, 이전과 달리 공부하고 노력하는 국회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국정감사 이전부터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상임위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피감기관의 기능과 현안을 중심으로 사전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보좌진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질의이슈선정과 토론 등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전의 소모적인 정쟁과 '한건주의'식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안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봅니다.

셋째,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충실한 감사를 지원한다기보다 부처의 주장에 고착돼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면은 아쉬움으로 기억됩니다.

처음 경험하는 국감이다 보니 큰 전략도 못 세우고 시작했고 좌충우돌 실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국감에서는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지, 또 추진코자하는 이슈를 어떻게 선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를 통해 올바른 정책제시를 해야 할 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피감기관들의 생리와 인적 구성의 특성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시했던 여러 정책을 법안으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방카슈랑스 문제도 그렇고, 국유자산 관리문제도 그렇고, 법인택시 기사님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문제도 그렇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그렇고, 통계위원회에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도 그렇고... 국감이 지나 피감기관이 문제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입법발의를 통해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이 언론만을 의식하는 하나의 정치적 쇼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와 국민이 맡기신 일이 많은데 시간과 능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국회의원 우 제 창



원혜영 국회의원

### 원혜영의원 2004년도 국정감사 自評

17대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에서 의원들의 각오는 예전과는 달랐다고 봅니다. 본인 또한 국정감사가 과거의 폭로위주, 한진주의를 탈피하여 정책국감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감을 준비했습니다.

민선시장(경기 부천시)을 거친 경험이 행정자치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느껴왔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행정력의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강화를 제시한다거나,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제시한 대안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자부국감에서는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른 행자부의 향후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적재적소에 인원이 투입될 수 있게 인사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무원 역량의 강화를 위해 민간의 교육훈련과 인재개발전략을 벤치마킹해야할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 경기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조정 필요성 △ 공무원노조법의 건전한 육성의 문제 △ 개방형 직위제의 기초단체 확대의 문제 △ 행정기관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율의 문제 △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사업) 부여사업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청국감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른 준비철저를 요구하고, 부족한 치안인력의 보충하기 위해 자율방범대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경찰이 안고 있는 부족한 재원이나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밖에 △ 경찰청 최근 3년간 보수단체 집회금지통고 全無 △ 중앙경찰학교 시설 너무 열악하다 △ 어린이 통학버스 편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등에 대한 질의를 펼쳤습니다.

중앙선관위 국감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더불어 낮은 선거참여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발현되므로 낮은 투표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참여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당추천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질강화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치 관여는 명백한 해임사유 △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연구환경 못 갖춰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밖의 기관에 대하여도 지자체의 경우는 주로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는 혁신사업을 통해 지역이 바로설수 있는 사업들을 잘 계획하고 추진해야한다는 요지의 질의를 주로 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과거의 구태를 완전히 벗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보도가 정쟁 중심의 대결구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등의 이유로 또 정쟁국감이냐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정책국감, 폭로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위해 점을 살피야합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바꾸어 낼 수 없었습니다. 분명 한계점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노력해가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국회,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감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국정감사NGO 모니터 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사회영역의 성장은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 내고, 합의를 통한 국가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선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감  
(NGO국감모니터단)

먼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NGO 국감 모니터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5대 의원시절에도 몇 차례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17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모든 의정활동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였는지, 국가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됐는지 살피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당면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제시,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노력 한 점이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해 주신 것은 17대 국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누구나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기본은 바로 “성실성”이 아닐까요? 국회도 항상 국정감사 시기의 모습처럼 기본을 지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국회의원 각자가 노력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 자신부터 민의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04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소감문

10월 한달 동안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하 기관들을 시작으로 하여 인천·경기 지역과 광주·부산 광역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 교육청과 국립대학 및 부속병원을 돌며 감사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가지게 된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인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첫 국정감사라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특별한 각오로 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어찌 완벽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면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배움의 기회라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는데, 270개 시민단체 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보니, 노력에 대한 조금의 보답을 얻은 듯하여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더 잘하라는 체찍인 듯싶어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 12. 8.  
국회의원 이 군 현

이상득 국회의원

### 소감문

전국 270여개의 시민 ·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5선의 원로정치인인 저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의 국감장에서 열심히 모니터하시고 냉철한 평가를 해 주신 모니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치하해드립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단체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모니터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성숙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하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아쉽고 미진한 점도 많았습시다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많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포항남·울릉 지역구 시민 여러분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23

국회의원 이 상 득

## 수상소감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27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에 의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는데 자긍심으로 느낍니다.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 민생국회보다는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국회운영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미니 정당으로서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회가 운영되어 소외감도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선거에서 지원해 주신 지역민들에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서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대불공단 등 국가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산자위원회에 지망을 했고 평소 정책은 현장감이 있어야 하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전문가들을 만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불공단 등 공단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당 질문시간이 10~15분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100% 활용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늘 처음처럼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각 피감기관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동 분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감 무용론을 말하지만 국회가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국정감사를 수행한다면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을 꼼꼼히 챙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200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 영광을 주신 2004년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자세  
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국회의원 이상열

이인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 선정소감

○먼저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17대 국정감사는 여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며, 미흡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하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대 국정감사에서 저는 비리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에 반복되어 왔던 구태 의연한 질의를 하기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는 고품격 질의를 하고자 다짐하였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현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촉박한 시간과 일정에 쫓기여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한시적인 국정감사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감사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저는 앞으로 교육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몇가지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제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학생들의 지적, 신체적 성장에 따른 학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제 시스템 개편 뿐만아니라 교과컨텐츠도 병행하여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현재 국내 사학들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건전한 사학에 대하여서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건전사학육성법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학이 비리없는 사학과 공공성과 건전성을



검비한 사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교육복지’가 향후 교육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복지정책은 극빈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구제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복지정책이 단순한 구제책을 뛰어넘어 학제, 교육 콘텐츠, 평생학습, 학교와의 연관성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하에 저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피감기관별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국정감사를 펼쳐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정감사 모니터활동과 더불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이인영

이철우 국회의원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04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소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이철우입니다.

언제 지난 듯 모르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한가운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은 화려했던 지난 계절을 돌이켜 보는 숙고와 반성의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겪으며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했던가 반성해 봅니다.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17대 국회였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난 국회가 보여줬던 구태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잘못을 이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질책으로 삼는다면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분한 상을 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저에게 또 다른 학습의 장이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마음으로 또한 국민을 대표해 국정운행을 감시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보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의 작용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국정감사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부풀리기, 폭로성 질의나 마치 자신의 위세를 보이려는 듯이 장관들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고함을 치고 호통하는 모습들, 당리당락에만 매몰되어 사안과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늘어지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는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겨우 입에 풀칠이나마 한다는 택시 기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다면 나는 하루 13시간 정도는 의정

활동에 전념해야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마음만 앞서고 정작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일을 했  
던가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토대로 해가 지날수록 점점 발전된 의정  
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민의 대표로서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과 또한  
국민의 눈과 귀로서 역할 해 주신 NGO모니터단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들 그  
리고 자료제출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과 밤늦게 까지 함께 준비해준 보  
좌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수상소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평가

국회의원 장복심(열린우리당 · 비례대표)

○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보건의료직능대표로 등원하였음에도 희망하던 보건복지위가 아닌 환경노동위로 소속 상임위가 결정된 탓에, 환경과 노동 분야에 대해 기초부터 공부해야 했고, 국정감사 또한 불과 몇개월 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보좌진과 전문가들과 밤늦도록 토론하고 준비한 탓에 자신감도 생겼고, 실제 국감과정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모범적인 국감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모토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정책제안과 제보를 체계적으로 받았으며, 가능한 그간 문제제기가 안되었거나 미흡하게 다루었던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하였고, 국정의 잘잘못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준비해왔고, 실제로 환경노동위의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이끌어가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자평합니다.

○ 국정감사에 임할 때는 여당의원이지만 봐주기식 국감을 거부하고 국정의 잘잘못에 대해 꼼꼼히 지적하여 야당의원들로부터 ‘여당속의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정수행과정에서 매우 잘한 일은 수범사례로 제시하여 사기를 북돋우고 귀감이 되도록 하였으며,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다하지 못한 사안들은 상세한 서면질의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저는 특히 열린우리당 보건의료 직능대표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환경노동위에서 그간 소홀히 취급해 온 환경보건 및 산업보건 분야 정책제안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가능한 한 그간 다루지 않은 사안을 국정감사 의제로 선정하여 타 의원들과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하고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정에 반영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을 촉구할 계획이며, 예산이 소요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을 통해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병헌 국회의원

국정감사 품격을 높여 생활중심정책제시를 위해 노력하며...

열린우리당 동작갑

국회의원 전병헌

생활중심 정치 실현을 위한 민생국감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에 왕도가 따로 없다.”는 교훈을 새기면서 국감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이기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성실하게 질의를 하는 것이 왕도의 길이라 생각하여, 생산적인 국감모델을 만들어내자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도움과 혜택 그리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생활중심정치 실현을 위한 생활개선형 국감, 서민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충전형 경제국감 등 새롭고 생산적인 국감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광복군 사료발굴, 금융기관 수수료 문제, 방카슈랑스 문제, 신용불량자 자립지원대책 마련, 보험소비자 주권회복 등 생활중심형 국감을 준비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시민단체들이 모인 NGO국감모니터단체로부터 이렇게 값진 상을 받으니 기쁘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17대 국회에는 많은 초선의원들이 새 정치를 다짐하며 등원하였기에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다들 기대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생기고 진정한 정책국정감사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NGO모니터단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매시간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모니터하시고, 질문의 내용, 자료 집까지도 검토하여 국정감사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감을 뒤로 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기대가 더 크기에 그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NGO모니터단의 평가를 밑거름으로 여기고, 내년 국정감사는 더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여옥 국회의원

## 국정감사 활약상 및 수상소감

국회의원 田麗玉

### ◆ 국정감사 활약상

금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본 의원은 소관기관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사업과 국가예산을 오남용 사례를 찾아내고 소관기관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통일부의 경우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과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였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에 납북자·국군포로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을 신설하도록 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경우 외교부 혁신을 위한 외교부의 자세를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따른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재외국민 안전과 탈북자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외교현안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의 경우 평통의 설립목적에 벗어난 사업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 평통 본연의 역할에 맞는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통일을 위한 평통의 자문 역할을 강화·확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외에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에 대해서도 사소한 것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발견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 ◆ 수상소감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당의 대변인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와같은 영예로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계속해서 초심을 잊지말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인정받는 선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두언 국회의원

## 국정감사 소감문

정책중심의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치루겠다는 각오로 임했지만 의욕만 앞선 나머지 당초 기대했던 목표에 크게 모자랐던 국정감사였습니다.

다만, 저는 큰 돌을 깨는 것 보다, 작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다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별성을 두기위해 여태까지 중요하면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 집중적으로 파헤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날밤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럽게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 어느 상보다 권위 있는 NGO모니터단 에서 주는 것이기에 더욱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은 저보다는 제 보좌진이 받아야 할 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립싱크만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박한 정치현실 속에서도 여유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미니홈피(싸이월드)에 참여하여 언제라도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 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12월 7일

국회의원 정 두 언

정성호 국회의원

## 국감자평 및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입니다.

바쁜 시간속에 묻혀 내가 어디에 서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를 지지해준 많은 분들을 떠올리며 나라와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되뇌고 다시금 결연한 의지를 가다듬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종료한지 한 달이 훌쩍넘어 이제는 정기국회 끝 무렵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국회에 등원하여 상임위 활동의 목표를 '부정부패척결'과 '지역토착비리근절'로 설정하고 국정감사도 그 관점에서 수행하고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 3개월에 걸쳐 국정감사를 준비하여 질의의 초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나아가 인권과 평등한 법적용을 위해 피감기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따가운 질책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고 잘된 것에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신상필벌의 자세로 국감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정감사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를 느꼈으며 이는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지난 국감은 저에게 있어 소관부처의 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지만, 국정감사 13일동안 총 65개 기관을 상대로 심도있는 국감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턱 없이 부족한 발언시간으로 인해 준비한 내용의 5분의1도 채 질의하지 못한 것은 본인에게 있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남습니다.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곁핍기식 국정감사로 인해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실정에 대해 짚어 내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을 책임져야할 국회의원으로서 깊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반해 지난 국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었습니다. 국감중반 정쟁에 휩싸여 정책국감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자 여러 제약속에서도 순조로운 국정감사가 이뤄졌으며 또



한 의원들의 왕성한 의욕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실용적인 자세로 국감에 임하였다는 점은 향후 보다 나은 국감을 위해서도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덧붙여,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할 수 있도록 국감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개방하여 기존의 밀폐된 국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쌓인 불신감을 상당수 희석시켰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일조했습니다. 다만 생산적인 모니터를 위해 시민단체의 전문성을 한 단계 고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다음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 종료후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적사항의 개선여부와 정책대안들의 적용여부 등을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국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후 검증작업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와 함께 지난 국감이 과연 그 취지에 부합되었는지 깊이 따져보고 향후 개선할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국가민족의 이익을 위하여는 일신이나 일당의 이익에 구애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전민족의 단결을 위하여서는 삼천만 동포와 공동분투할 것이다” - 백범 김 구 선생의 말씀을 떠올릴수록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반성할 일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감우수의원상을 수상했을때 무척 기뻐지만, 반면에 더 깊이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전국 27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2004 국정감사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국감기간중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지역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8

국회의원 정 성 호

정세균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에 대한 자평 및 수상소감

□ 자평:

저를 우수의원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특출날 것도 없이 다만 성실하게 임했을 따름인데, 귀한 상을 주셔서 과분할 따름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 온 터라, 매년 할 수 있는 한 성실히 준비하고 질의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더구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제가 처음 접하는 곳인데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여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영역은 눈부신 기술발전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여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지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행정부의 정책집행 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일반국민의 입장과 시점에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산하기관들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3선째에 접어든 저에게는 중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몇 언론에서 ‘초선같은 중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제가 언급되기도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기분좋은 기사임에 틀림없지만, 국감은 초선들이 주도한다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 같아 아쉽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초선의원들은 국감이 자신을 각인시킬 중요한 기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보다는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사안에 매달리곤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진들은 뒷전에 앉아 관망하는 자세를 갖기 십상입니다. 눈앞의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초선들에게 나뉠대로의 역할이 있는 반면, 중진들은 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지적하고 질의함으로써 균형있는 국감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7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한 국감을 통해 전과 다른 신선한 모습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야간 성토장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던 과거와 달리 행정부의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정책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여야 구별 없이 질타하는 모습들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 및 보좌진들로 구성되어 전에 비해 수준 높은 질의도 많아 이른바 ‘정책국감’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과가 아니었나 합니다.

다시한번 저를 2004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수의원으로 뽑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정세균

#### 국정감사 주요활동

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수도권 및 대전광역시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2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서면결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아예 회의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다, 여성위원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자력 분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가 허술하여 군부대의 경우 무면허자가 방사성 위험물질을 취급하기도 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이 고도화함에 따라 그 역기능도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므로 선진국이 7,80년대부터 관심을 기울여 온 ‘기술영향평가’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평가에 있어 연구불량 사업이 상당수 있는 점을 시정 요구하였다.

한국과학문화재단: 작년 한해 미디어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 높은 홍보효과를 거둔바 있는데, 1년만에 과학콘텐츠 구축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공계 위기와 관련하여 ‘청소년 과학문화 확산사업’이 이벤트 중심인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관심증대를 낳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기상청: 막대한 태풍피해가 연례화하여 2000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사망이 418명, 손실이 10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태풍 예보센터’를 조기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내구연한을 넘은 노후 기상관측 장비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정통부: IT 분야 원천핵심기술이 대부분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작년에만 로얄티로 52억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에 대한 가입권유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어 통신요금 체납액이 8,777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밝혔다.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6년간 무려 8조 887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지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년에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 1호기를 연장운영할 것인지에 관해 철저한 진단을 촉구했다. 또한 영광 5·6호기, 울진 5호기에서 연이은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고를 들어 한국형 원전의 결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소의 방사능 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전시 인근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평균치보다 22배 높은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원자력 의학원: 설립목적과는 달리 여전히 '종합병원'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 단순 관리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연구활동과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대덕R&D특구 구성에 따른 한국과기원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연구과제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시장개척 노력을 주문했다.

고등과학원: 뛰어난 연구실적을 높이 사지만, 인재를 배출하는 단계를 넘어 인재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를 발전시켜 지역 내 특화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주문하였다.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분야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주장하였다. 총 12개 사업(총사업비1,470억원)이 타부처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역할 재정립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전산원: 정보화사업에 대한 실질적 사전타당성 평가가 없어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존 정보접근 격차해소와 연계된 질적 정보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또한 장애인 정보격차가 일반국민에 비해 37%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반도체 제품의 막대한 수출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게 하는 IT- SoC 부문에 대한 집중 육성과 투자를 요구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이용시 1~44개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지적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전문인력 수급전망이 크게 틀려서 IT 인력 불균형을 심화시킨 점을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 후 연료 저장기간인 포화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부안지역에서 용역회사를 통해 정보전·심리전을 방불케 하는 홍보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질타했다.

부산채신청: 금융, 택배, IT, 디지털 지상파 TV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업다각화에만 몰두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정장선 국회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정치를 위한 큰 걸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귀중 (정장선의원실)

2004년도 아직 한 달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길고, 어려웠던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거쳤고, 국민의 힘으로 소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와 빛이 산적해 있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좋은 오늘, 오늘 보다 더 기다려지는 내일이 아니라, 어두운 먹구름이 앞을 가리고, 희망보다는 아픔이 다가올까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치인으로 再選이 되어 맞은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니터단이 주신 「2004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이 뿌듯하고 기쁘지만, 아쉬움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하여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고 보다는 어려운 현실로 인한 자책감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또한 들었습니다. 때로는 질책을, 때로는 격려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았고, 당나귀 귀처럼 넓게 들을 수 있질 못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간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를 숙제로 남겨 놓아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신 상을 상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회초리라고 생각하고 달게 맞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못한 숙제와 내년의 일을 함께 더욱 열심히 풀어가겠습니다. 당리당략도 이념도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만을 위해서 당당한 큰 걸음을 걸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희망과 미래로 걸어갈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아낌없는 박수를 당부드립니다.

저에게 여러분께서 주신 상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며, 짧지 않은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 12.

국회의원 鄭長善

주호영 국회의원

### ‘국정감사NGO 모니터단’ 선정 국감우수의원 수상소감

우선, 늘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국회의원들을 격려해 오신 ‘국정감사NGO 모니터단’ 김대인 대표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대 국회를 처음 맞이하여 부족하나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지만 뜻밖에도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보니 너무나 기쁩습니다. 제가 한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고 평가를 잘 해 주는 데에서 오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는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각종 연구, 정책모임에 참여하여 의욕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20여년간 법조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는 부검이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변사사건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부검여부가 유족들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과 신속한 사건처리로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수사기관의 독직사건 기소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도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법률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법원보관금 유치에 관해서 지방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서울고법 관내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율이 10%대에 그친 것을 밝혀내고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도입된 성과감사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부실한 국책사업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참여정부 들어 감사원의 재심청구가 2배가량 증가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접수사건 중 94.5%가 부패방지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패근절에 주력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처 신설과 관련하여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국정원, 검찰 등에 대해 서면조사비용이 높다는 것을 찾아내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힘 있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세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주 호 영 올 립



최인기 국회의원

## 국감우수상을 받고

오랜만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연대·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우수위원으로 상을 받고 보니 기쁨이 더욱 큼니다.

지난 5월말 국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푸르던 잎들이 여름과 가을을 거치면서 몇 차례 옷을 갈아입더니 어느새 떨어져 바닥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바쁜 의정생활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정책과 사업집행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일이기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적지 않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적한 내용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국정감사기간 내내 모니터링하고 평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수고가 있기에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정치발전이 촉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 11 . 23

국회의원 최 인 기

최철국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소회

국회의원 최철국(열린우리당, 경남 김해을)

우리 17대 국회의원들은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잘 알고 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준비를 해서 국정감사를 맞이했다.

근 100일 동안 보좌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무역, 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등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의 각 분야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대안을 찾아나갔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발전경쟁체제의 효과와 문제점 등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1달여의 작업 끝에 [전력산업구조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첫 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구조개편 이후 한전( 및 발전회사들)의 인건비 상승, 포상비 과다 지급, 연구개발투자를 축소, 유연탄 구입의 안정성 저해 및 가격상승, 전력거래소 운영의 비효율성 등 사안에 대해 한전과 발전회사 사장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제점 지적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 대안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던 까닭에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는 지적사항을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한전 감사 내용이 중앙언론에 많이 보도되고(2번의 1면 톱 등) 지역주민과 지인들로부터 ‘역시 최철국이야’라는 격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생기고, 더욱 잘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첫날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인지 이후 계속된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광업진흥공사,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업자원부 등 20여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자신있게 준비한 내용을 잘 소화해 나가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며 누적결손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전 34공단 열병합발전소의 지역난방공사 위탁경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산업

자원부 에너지자원 담당 조직 확대 개편, 석유수입 부과금 환원, 에너지자원 분야 예산 증액, 제조업의 중국으로의 대탈출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소유 토지에 공단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공장부지를 제공해 주는 문제, 한-일 FTA에 따른 부품·소재산업 대책, 저소득층 가스안전시설 개선자금 확대, 특허심사 대기기간 단축 대안, 신고리 1,2호기 건설사업 조속 시행 등 내가 질문했던 많은 내용들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정부와 우리 당의 정책으로 확정되고 산하기관이 시정약속을 거듭하면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고, 많은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17대 국회 임기 중 3번의 국정감사가 더 남아 있는데 계속 올해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며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선교 국회의원

수상소감  
국회의원 한선교

국감장에 들어서면 늘 캠코더나 수첩을 들고 날카로운 눈매를 번득이며 의원들을 노려보는 이들이 있었다.

20년 동안 방송생활을 해온 나에게는 방송기자나 TV 뉴스 카메라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다.

각 국감장에 배치되어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한시도 자리를 뜨지않고 의원들의 발언은 물론 표정 하나하나 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들 NGO모니터단의 수고가 여러 의원들을 좀 더 긴장시키고 결과적으로 좀 더 충실한 국정감사를 이끌어 냈으리라 생각한다.

초선의원 모두가 그랬겠지만, 무척이나 긴장되고 부담스러우면서 한편 설레기도 했던 첫 국정감사였다.

지역구에 산재한 난개발과 교통문제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를 선택했지만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가 필요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질의하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린 일도 수차례였다.

첫 국정감사를 끝내면서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보다 건설교통 분야의 엄청난 숙제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온 느낌에 오히려 마음이 바빠졌다.

무엇보다 이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는 여야 상생의 정치, 조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이다. 함께 국정감사를 치른 선배, 동료의원들과 편치 않은 자리에서 고생했을 피감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싶다.

정작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준 NGO모니터단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손톱만한 경계심이 내년 국감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열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